

가열되는 영산강 죽산보 해체 찬반 논란

한국당 저지특위 현장 방문·주민회의 열고 "졸속 해체 반대" 시민·환경단체 "관리비용·자연성 회복 위해 완전해체 해야"

나주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죽산보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측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을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각종 자료를 왜곡·조작해 졸속으로 결론내렸다"며 해체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자연성 회복과 유지 관리비용을 따져봤을 때 해체가 옳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10일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주민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당 위원 11명을 비롯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나주 시민, 환경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의 등 4개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일부 관계자가 막아 서며 양쪽간 고성어 오가기도 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지류·지천을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는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입맛에 맞게 연구지표를 이용하며 3개월 만에 해체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영산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농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지난 정부의 공적을 지우려는 처사"라고 회의를 연 취지를 말했다.

자유한국당측은 또 "환경부에서는 1000억원 이상의 수질 개선 편익이 있다고 하는데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보 해체에 관한 여론조사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로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국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나주시

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반박했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도 '영산강 수계 보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보 해체는 충분한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는 정부측 입장을 설명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추가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진행해 오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지하수 감소·영산강 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황포돛배 선착장 이전에 따른 '홍어의 거리' 상가 경제적 피해, 어획량 감소 등 보 해체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민회의에 참석한 승촌보 해체를 반대하는 한 주민은 "1960년대 가뭄이 들어 영산강 상류에 장성댐 등 4개 댐을 만들었고 직선화 사업으로 영산강의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죽산보는 존치한 후 필요에 따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승촌보 해체를 찬성하는 주민은 "이명박

정부는 물 부족으로 영산강 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남에서 실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영산강과 상관없다"며 "반복하게 발생하는 녹조 등을 해결하려면 보를 해체해 자연성을 회복하는 길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주민회의에 앞서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 개방을 하더라도 보 구조를 자체가 영산강 너비의 50% 정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완전 해체해야 한다"며 "4대강을 파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핑계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나주·김영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고성...몸싸움 10일 나주 죽산보 관리사무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가 주민회의에서 죽산보 해체를 놓고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나주·최현배 기자choi@

'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시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공천 목적으로 돈 준 것" 윤 전시장 "죄송"...무죄 주장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천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여사를 사칭한 김모(50)씨의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천선거법과 사기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 단순한 부탁을 넘어 대통령과 당 대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의 명에는 물론 전직 시장으로서 광주시의 명예에도 깊은 상처를 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공천을 바꿨다면 진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지 의심하고 확

실했을 것이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사재를 털어 시민운동을 해왔고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빛진 마음이 있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은 "많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당하지 못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앞으로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 소박한 꿈이 있다면 예전처럼 상인과 손잡고 시민과 눈 맞추는 평범한 광주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지의 어려운 현장에서 의사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또 바로 옆에 앉아있던 김씨에겐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한차례 포옹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신 윤장현 시장에게 아직까지 사죄의 말 한마디 못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윤 전 시장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윤 전 시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윤 전 시장과 김씨는 부정 채용 정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홍역 환자 잇따라 발생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홍역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모(20·광주)씨가 지난 6일 고열에 시달리던데 이어 9일에 피부 발진이 생기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주간에 걸쳐 중국과 베트남 등을 여행한 뒤,

홍역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남에 사는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39)이 20일 동안 가족과 필리핀에 머물다 귀국한 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일 현재 홍역 확진 환자는 광주 2명, 전남 12명 등이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임택 광주 동구청장 정자법 위반 무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은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주민 최모(73)씨가 임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선수회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임 구청장이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고, 고소인이 일부 진술을 반복하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임 구청장이 지난해 6·13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로 활동하며 취업알선비 성격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로커 역할을 한 주모(68)씨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면 자녀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임 구청장은 주씨 소개로 알게 된 최씨로부터 정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취업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흉기 찔려 숨져

목포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45분께 목포시 한 오피스텔에서 A(여·38)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9 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

나 이날 오후 3시께 끝내 숨졌다. 최초 신고를 한 동거남 B(42)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A씨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부부싸움 '위험한 뒤끝'

아파트 불 지른 아내 조사

광주 광산경찰은 10일 부부싸움 뒤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여·30)씨를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0일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자신이 살고 있는 한 아파

트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방안에 있던 의류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지만 방안(8㎡)이 그 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과 다투던 남편이 잠시 담배를 피우려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한번 출게 자보라'며 헤어진 여친 집 창문 벽돌로 깨

○"한번 출게 자보라"며 이별한 여자친구 집 창문을 벽돌로 깨 40대가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9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서구쌍촌동 B(여·34)씨가 사는 원룸에 찾아가 벽돌을 던져 1층 창문을 깬다는 것.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해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유리창 없이 출게 자보라'며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먹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